

2026.8.23

연중 제 21주일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톡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영 성 체	파 견
<폴더 25번> 해바라기 노래	<폴더 19번> 나의 의지를 주님께	<폴더 26번>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폴더 37번> 두려워 말라

제 1독서 | 이사야서 22,19-23

화답송 |

◎ 주님, 당신 자애 영원하시니 손수 빛으신 것들 저 버리지 마소서.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나이다.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제 2독서 | 로마서 11,33-36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마태오 16,13-20



백오로팔콘텐츠

<오늘의 독서와 복음>

<제 1독서>

주님께서 궁궐의 시종장 세브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19 "나는 너를 네 자리에서 내쫓고, 너를 네 관직에서 끌어내리리라. 20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나는 힐키야의 아들인 나의 종 엘야קים을 불러 21 그에게 너의 관복을 입히고 그에게 너의 띠를 매어 주며 그의 손에 너의 권력을 넘겨주리라. 그러면 그는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가 되리라. 22 나는 다윗 집안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매어 주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23 나는 그를 말뚝처럼 단단한 곳에 박으리니 그는 자기 집안에 영광의 왕좌가 되리라."

<제 2독서>

33 오!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녕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34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35 아니면 누가 그분께 무엇을 드린 적이 있어 그분의 보답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36 과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복음>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교리교육 - <조건 없는 사랑의 체험>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때, 자신의 이익의 문턱 너머에서 드러납니다...(중략) 충실함은 자유롭고 성숙하며 책임 있는 인간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참된 친구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정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조차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바라시는 충실한 친구이

십니다... (중략)

인간은 조건 없이 사랑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마음속에 어떤 결핍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은 그 빈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합니다. 사랑의 참된 의미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채, 타협적이고 불분명한 관계들로 그 공허함을 메우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직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관계를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이 우리 삶에 참된 빛을 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참된 빛이 아니라, 그저 빛을 반사하고 있을 뿐인 것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오로 사도가 차분하게 교리와 여러 가르침을 정리해서 쓴 글이라면, **코린토 1서와 2서는 주로 코린토 공동체의 문제들 때문에 썼던 편지들입니다.** 신약성경에 들어 있는 두 편지 외에도 바오로 사도는 다른 편지들을 코린토 교회에 보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코린토 2서에 가서는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도 나타나지만, 어쨌든 코린토 교회는 파란만장한 문제들을 겪었던 듯합니다.

코린토 1서의 앞부분에서 무엇보다 크게 부각되는 문제는 공동체의 분열입니다. 신자들이 스스로 바오로 편, 아폴로 편, 케파 편, 그리스도 편이라고 내세우면서 무리를 지어 갈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바오로에게 전해진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바오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에 머물면서 주변에 지지자들을 모은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신자들은 이런저런 이름들을 내세우며 갈라졌습니다. 좀 심하게 비유를 하자면, 같은 정당 안에서도 끝없이 갈라지는 요즘의 정치인들을 떠올리면 될까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바오로 사도는 신자들에게 합심하여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1,10)**라고 말합니다.

어떤 종류의 모임이든지 사람들의 모임에서 한마음이 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 겪어 본 순전히 인간적인 경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본다면, 일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두 종류가 있는 듯합니다. 첫째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다 착한 경우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화합을 추구할 때입니다. 이런 일치도 있기는 한데, 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둘째는 확실한 중심이 있는 경우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어도 어떤 중심이, 또는 거의 절대적인 권위가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경우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신자들의 일치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모두 나타납니다. 한편으로 바오로 사도는 스스로 지혜롭다거나 힘이 있다고 내세우는 것을 반대합니다.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율법 학자나 세상의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찾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인물을 내세우거나 스스로 잘났다고 주장하면서 나서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세상의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을 선택하시어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1,29).** 그리고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2,2)만을 구원의 길로 세우셨습니다.** 지혜롭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나 힘을 통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극히 어리석고 무력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1,25). 스스로 지혜롭고 힘이 있다고 내세우는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세상에서 전쟁과 분열을 일으킬 뿐입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를 선택할 때, 일치와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길이 지혜로운 길인지, 하느님이 우리보다 잘 아십니다.

공지 사항

1. 새로운 미사 전례곡 연습

지난 사순 시기 이후, 매월 첫째 주에는 그레고리오 라틴어 성가를 미사 전례곡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성가는 내년 사순 시기에 맞추어 다시 연습하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새로운 미사곡을 연습하여 부르고자 합니다. 이번에 사용할 미사곡은 신상옥 안드레아 작곡의 미사곡입니다 (복음 환호송은 유승현 바오로 미사곡) 성가대와 반주자들의 연습 이후 9월 초~중순경부터 함께 부를 예정입니다.

아래 QR코드를 통해 유튜브에서 미리 들어보시면 새 미사곡을 익히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신상옥 미사곡



복음환호송

<전례 음악에 관하여 - 레오 14세 교황>

음악은 전례 행위 그 자체의 일부분이며, 거룩한 전례를 그저 꾸며주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전례 안에서 노래하고 연주한다는 것은 곧 기도하는 것이며, 거행되는 신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형제자매들의 마음과, 또한 하느님의 마음과 조화롭게 맞추는 일입니다. 특히 음악은 기도의 정서적 차원을 표현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Cantare amantis est", 곧 "노래하는 것은 사랑하는 이의 본분입니다"(설교 336, 1). 이는 참 중요합니다. 이는 은총 안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의 역사에 우리 마음을 열고, 그분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성가는 친교를 도모합니다. 목소리들의 교향곡을 통하여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넘어서고, 모두를 하느님에 대한 찬미 안으로 함께 불러 모아 마음의 일치에 이바지합니다.

| 공동체 기도 지향

*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8월 축일자들을 위하여>

- * 최원미 클라라 (8.11) * 이민정 글라라 (8.11)
- * 임채숙 마리아 (8.15) * 강하니 스텔라 (8.15)
- * 최은희 헬레나 (8.18) * 정루이 루이스 (8.25)

* 교황님의 이번달 기도 지향 - <도시 복음화>

익명성과 고독이 만연한 대도시에서 공동체 건설을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발견하여 복음 선포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봉헌금 & 교무금 | (8월 15일 ~ 8월 21일)

봉헌금	\$ 228			
교무금	\$ 710			
구민식	서미숙	신미란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지영	전인철	정수민	정은영
주정자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

| 퀵비얀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8월 공동체 실천 |

세상을 떠난 이들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주모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바치기.